

## 가야트리 스피박의 서발턴 개념으로 버지니아 울프의 『델러웨이 부인』 다시 읽기

최 상 이\*

### [국문초록]

이 논문은 가야트리 차크라보티 스피박의 『탈식민이성비판: 사라져 가는 현재의 역사로』의 핵심인 토착정보원의 폐제(*foreclosure*)와 서발턴(*subaltern*) 개념을 살펴보고, 이 개념으로 모더니즘 소설 『델러웨이 부인』을 다시 읽어보려는 목적을 가진다. 스피박은 계몽 철학을 인류학적 관점으로 새롭게 읽어 이성의 승리 뒤에 존재하는 폐제되어야 하는 토착정보원에 주목하고, 『제인 에어』를 여성 개인주의의 성취로 읽는 1세계의 부르주아 페미니스트 비평에서도 같은 패턴을 읽어낸다. 스피박은 제인이 가부장적 법적 질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버사 메 이스과 같이 폐제되어야 하는 서발턴 여성이 존재함을 밝혀내고, 이 두 인물의 관계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그동안의 페미니즘 담론이 제국

\* 서울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박사과정

주제어: 스피박, 『탈식민이성비판』, 토착정보원, 서발턴, 『델러웨이 부인』, 더블, 셉티머스

Spivak, *A Critique of Postcolonial Reason*, Native Informant, subaltern, *Mrs. Dalloway*, double, Septimus

주의의 공리에 공모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 서발턴 개념으로 20세기 모더니즘 소설 『델러웨이 부인』을 읽을 때 기존의 더블 논의는 문제적일 수 있다. 1세계 작가인 버지니아 울프가 쓴 『델러웨이 부인』에는 3세계의 토착민이 거의 등장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울프 작품과 제국 주제는 뗄 수 없는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 울프가 스스로 밝히듯, 주인공 클라리사 델러웨이의 더블로 등장하는 셉티머스 스미스는, 전쟁의 충격으로 인해 이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 권위자들에 의해 주체를 상실하고 작품에서 폐제될 수밖에 없다. 기존의 더블 비평에 서발턴 개념을 추가하면 이 더블의 관계는 제국주의에서 행해지는 인식론적 폭력을 증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클라리사가 죽음을 해결하는 방식이 인식 불가능한 이성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이성의 탁월함을 증명하는 칸트의 숭고의 역학과 유사함을 밝히고, 셉티머스는 클라리사 뿐만 아니라 영국 지배계층을 위한 토착정보원의 역할을 하며, 스피박이 지적하는 토착정보원과 같이 폐제되는 서발턴으로 읽을 수 있음을 논의해보려 한다.

## 1. 들어가며

이 논문의 목적은 가야트리 차크라보티 스피박(Gayatri Chakravorty Spivak)의 『탈식민이성비판: 사라져 가는 현재의 역사로』(*A Critique of Postcolonial Reason: Toward a History of the Vanishing Present*)의 핵심 주제인 토착 서발턴 개념을 이해하고, 이 개념을 『델러웨이 부인』(*Mrs. Dalloway*)에 적용하여 작가에 의해 더블로 설정된 클라리사 델러웨이(Clarrisa Dalloway)와 셉티머스 스미스(Septimus Smith)의 관계가 제국주의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음을 밝혀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스피박의 서발턴 개념을 살펴보기로 하자. 스피박이 서문에 밝힌 대로 이 저서는 모두 연결된 “하나의 연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토착정보원”(native informant)이다.<sup>1)</sup> 저자가 밝히는 이 저서의

기획은 철학과 문학, 역사, 문화의 영역에서 토착정보원을 추적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모든 영역이 공모하고 있는 큰 기획으로서의 제국주의를 밝히는 것이다. 이 기획의 핵심에 있는 토착정보원은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Can the Subaltern Speak?” 이후 「서발턴」)에 등장하는 서발턴(subaltern)의 다른 이름이다. 『탈식민이성비판』은 스피박이 전에 출판한 여러 개의 에세이 초판을 철학, 문학, 역사, 문화의 순서로 묶고 약간의 수정을 가한 책인데, 서문에 그 초판들이 소개된다. 특이한 점은 모든 에세이가 출판된 연도순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1991년에 쓰인 「서발턴」만이 시간과 관계없이 맨 앞에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다.<sup>2)</sup> 이런 순서는 「서발턴」이 가장 많은 비평가들의 흥미를 끌고 이후로 많은 논의를 이끌어낸 논쟁적인 에세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저자 스스로 이 저서의 핵심 주제가 서발턴 논의라는 점을 드러내는 증거라 할 수 있다.<sup>3)</sup>

활발한 비평 작업을 일으킨 「서발턴」은 종종 “서발턴이 말할 수 있는가”의 질문 자체와 글쓰기 방식에 초점을 둔 잘못된 비평을 낳기도 했다.<sup>4)</sup> 대표적으로 베니타 패리(Benita Parry)는 서발턴이 말할 수 없다고

1) Gayatri Chakravorty Spivak (1999), *A Critique of Postcolonial Reason: Toward a History of the Vanishing Present*, Cambridge: Harvard UP. p. xi.

2) Spivak (1999), pp. x-xi.

3) 나머지 출판 순서대로 정리된 에세이는 「시무르의 라니: 보관 문서 독해 에세이」(“The Rani of Sirmur: An Essay in Reading the Archives” (1985)), 「세 여성의 텍스트와 제국주의 비판」(“Three Women’s Texts and a Critique of Imperialism” (1985), 이후 「세 여성의 텍스트」), 「제국주의와 성차」(“Imperialism and Sexual Difference” (1986)), 「주변부의 판본들: 드포의 『크루소/록사나』를 읽는 J. M. 콧치의 『포우』」(“Versions of the Margin: J. M. Coetzee’s Foe Reading Defoe’s *Crusoe/Roxana*” (1991)), 「시간과 시간화: 법과 역사」(“Time and Timing: Law and History” (1991))이다.

4) 로버트 영(Robert Young)은 스피박이 제대로 이해받지 못하는 이유로 한 번에 너무 많은 것들을 시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그것이 스피박의 단점이라기보다는, 스피박이 관심을 두고 착수하는 주제의 복잡성을 드러내 주는 특징으로 해석한다(Robert Young (1990), *White Mythologies: Writing History and the West*, New York: Routledge. p. 158.).

단정 지어 버리는 시도가 오히려 서발턴의 투쟁 기록을 지워버리고 만다고 지적하며, “피식민인들이 다시 역사 속으로 쓰여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제한한다”고 비판한다.<sup>5)</sup> 또한 임옥희는 논의의 대상인 서발턴 주체들이 “스피박의 난삽한 문체와 이론” 때문에 『탈식민이성비판』에 접근하기도 어려울 것이라 평가한 바 있다.<sup>6)</sup> 이런 오해는 「서발턴」 초판에서 스피박이 “서발턴은 말할 수 없다”는 단언으로 마무리한 까닭도 있다.<sup>7)</sup> 하지만 십여 년 이후 「역사」장에 수정되어 실린 「서발턴」개정판에서 스피박은 자신이 과거에 “서발턴이 말할 수 없다”고 쓴 것은 “격정적인 통탄”이었다면서, “이 말은 권장할 만한 주장이 아니다”라고 변형을 가한다.<sup>8)</sup>

그러나 리투 벌라(Ritu Birla)가 지적하듯, 「서발턴」의 주제는 서발턴 자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행위자로서 주체 생산과 이에 수반되는 주체 재현의 역학”에 대한 것이다.<sup>9)</sup> 단순히 서발턴에게 발화의 기회를 주자는 토착주의나 다문화주의가 아니라 서발턴니티(subalternity)를 “차이-속의-동일성”<sup>10)</sup>으로 여기는 타자화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벌라가 주목하는 것은, 타자의 형성에는 식민주체가 타자로서 형성되는 문제 뿐 아니라 유럽의 자아 형성도 포함되는데, 이때 식민 당국의 통치에 도움을 주는 토착정보원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토착정보원은 “타자로 배정되었던 것이 자아가 될 수 있는” 방식에 사용되며, 이는 “타자성을

5) Benita Parry (1987), “Problems in Current Theories of Colonial Discourse,” *Oxford Literary Review* 9.1. p. 39.

6) 임옥희 (2002), 「스피박의 페미니즘: 탈식민 공간을 위하여」, 『여성이론』 6. p. 208.

7) Gayatri Chakravorty Spivak (1988), “Can the Subaltern Speak?,”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ed. by C. Nelson), Basingstoke: Mackmillan Education. p. 104.

8) Spivak (1999), p. 308.

9) Ritu Birla (2010), “Postcolonial Studies: Now That’s History,” *Can the Subaltern Speak? Reflections on the History of an Idea*, New York: Columbia UP. p. 99.

10) Birla (2010), p. 104.

정체성의 기반으로 전유하고” “단일 주체를 타자의 자리에 상정함으로써” 이루어진다.<sup>11)</sup> 따라서, “서발턴이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타자를 자아의 자리로 옮겨 그들에게 통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서구의 모든 분과학문의 공모자들에게 향하는 질문으로 읽는 것이 더 타당하겠다.

그러므로 이 글은 먼저 『탈식민이성비판』의 「문학」장에서 보여주는 『제인 에어』(*Jane Eyre*) 독해를 통해 스피박이 “서발턴이 말할 수 있는가”의 질문을 던지게 된 계기와 의미를 파악해 볼 것이다. 스피박의 서발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이 논의의 토대를 제공하는 「철학」장에서, 토착정보원이 출현하는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의 『판단력비판』(*Critique of Judgment*)의 숭고(sublime)의 역학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는 이 서발턴 개념을 가지고 『델러웨이 부인』을 다시 읽어 보려 한다. 클라리사와 셉티머스의 역할은 서발턴 개념을 통해 기존의 더블 논의와는 다른 탈식민주의 관점으로 읽을 수 있으며, 제국 주제와의 관련한 논의가 활발한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의 다른 작품에 비하면 비교적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델러웨이 부인』에서 새로운 비평을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 2. 스피박의 서발턴: 버사의 광기와 주체 상실

먼저 스피박의 서발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탈식민이성비판』의 「문학」장에서 『제인 에어』 독해 부분을 살펴보려 한다. 스피박은 부르주아 페미니스트들이 제인의 성취를 여성 개인주의 성취로 읽어 내면서도 “육아와 영혼형성(childbearing and soul-making)”이 제국주의 기획의 이데올로기로서 사용되는 것을 읽는 데는 실패하고 있음을 비판

11) Birla (2010), p. 100.

한다. 앞에서 밝힌 대로 『탈식민이성비판』을 구성하는 여러 에세이 중에서 시간 순서상 제일 먼저 쓰인 「세 여성의 텍스트」는 『탈식민이성비판』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역사」장으로 재구성된 「시무르의 라니」가 같은 해에 쓰였지만, 이 에세이는 문학이 아닌 실제 역사 속에서 소외되는 서발턴 사례를 다룬 글이기 때문에 문학 분과에 초점을 두려는 이 글에서는 우선 제쳐놓기로 한다.

「세 여성의 텍스트」에서 다루는 작품은 『제인 에어』와 『광막한 싸가소 바다』(*Wide Sargasso Sea*), 『프랑켄슈타인』(*Frankenstein*)인데, 스피박은 특히 『제인 에어』가 비평가들에게 읽혀온 방식에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논의를 시작한다. 스피박에 따르면, 페미니스트들은 『제인 에어』가 개인주의적 여성으로 독립하는 과정에만 집중할 뿐, 거기에 불려온 로체스터(Rochester)의 법적 아내 버사 메이슨(Bertha Mason)과 같은 존재를 제대로 읽어내는데 실패했다. 스피박이 보기에 제인 에어가 모호한 가정교사 계급이라는데 초점을 맞춘 테리 이글턴(Terry Eagleton)이나, 버사를 제인의 더블로 읽어낸 산드라 길버트(Sandra Gilbert)와 수잔 구바(Susan Gubar)는 모두 문제적이다. 그들은 대항가족(counter-family)<sup>12)</sup>의 자리에 있던 제인이 가부장제의 법적 가족의 자리 안으로 들어오는 데 성공한 모습은 읽어내지만, 제인의 자리바꿈을 위해 소모되어야 하는 버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 전제의 큰 줄기는, 제국주의 시대의 페미니스트 개인주의를 위해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 존재의 형성과, 개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개인주의자”로서 주체의 구성과 “소환”이다. 이 문제는 육아와

12) 스피박은 제인의 여정에서 세 쌍의 가족/대항 가족의 연속적 배치가 있음을 지적한다. 첫 번째는 리드(Reed) 씨 가족에 대항가족으로의 제인이고 둘째는 학교를 운영하는 브로클허스트(Brocklehurst) 가족과 제인과 선생님, 친구로 구성된 대항가족이 있다. 마지막으로 로체스터와 법적 아내는 가족으로 로체스터와 제인은 대항가족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Spivak (1999), p. 120).

영혼 형성이라는 두 개의 기록부에서 재현된다. 첫째는 “동반자적 사랑”으로 집중되는, 성적-재생산을-통한-가정-사회이고, 둘째는 사회적-사명을-통한-시민-사회로 집중되는 제국주의 기획이다. 조금-부족하지만-남성은-아닌 여성 개인주의자는 중요한 문제와 맺는 변화 중인 관계에서 자신을 명료하게 표명할 때, “토착 서발턴 여성”은 (답론 내부에서, 하나의 기표로서) 이렇게 생겨난 규범의 어떠한 부분으로부터도 제외된다.

The broad strokes of my presuppositions are that what is at stake, for feminist individualism in the age of imperialism, is precisely the making of human beings, the constitution and “interpellation” of the subject not only as individual but also as “individualist.” This stake is represented on two registers: childbearing and soul-making. The first is domestic -society-through-sexual-reproduction cathected as “companionate love”; the second is the imperialist project cathected as civil-society-through -social-mission. As the female individualist, not-quite-not-male, articulates herself in shifting relationship to what is at stake, the “native subaltern female” (*within* discourse, *as* a signifier) is excluded from any share in this emerging norm.<sup>13)</sup>

인용문에서 스피박은 부르주아 페미니스트들의 문제가 서구 여성의 개인주의 성취를 위해서는 분명히 제외(excluded)되어야 하지만 존재하는 “토착 서발턴 여성”을 가리고 있다고 명확하게 지적한다. “서발턴”이라는 용어는 『세 여성의 텍스트』에는 빠져 있다가 『탈식민이성비판』에는 추가된 것으로 보아, 스피박의 논의가 단순한 토착 여성이 문제가 아닌 “서발턴”의 문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sup>14)</sup> 논의에 앞서 스피

13) Spivak (1999), pp. 116-17.

14) 스피박은 서발턴이라는 용어에 대해 꽤 여러 곳에서 꼼꼼히 설명하고 있어 스피박 논의에서 서발턴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단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논의 하도록 하겠다.

박은 “영국의 사회적 사명이라 이해되는 제국주의가 영국인들에게 영국의 문화적 재현의 중요한 일부였음을 기억하지 않고서 19세기 영문학을 읽어내기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다”<sup>15)</sup>는 전제를 밝히며, 19세기 영문학과 제국주의의 밀접한 관련을 명시한다. 여기서 스피박이 초점을 두는 제국주의 안의 여성 문제는 단순히 남성과 대척점에 있는 여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제국의 문제가 포함된다는 점이다. 그에 더해 제국주의 안에서의 여성 문제는 위에서 언급하는 “육아”나 “영혼형성”이 “동반자적 사랑”이나 “사회적 사명을 통한 시민 사회”등의 위장을 덧입고 있어 그 뒤에 존재하는 토착 서발턴 여성을 가리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제인 에어』 작품 읽기에서 드러나는 제국주의 페미니스트들의 문제는, 대항 가족의 자리에 있던 제인이 가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광기의 버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적으로 버사가 로체스터 부인이지만, 실상 그 자리는 버사가 아닌 제인을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가족의 바깥에 있는 제인이 그 역할을 차지하기 위해서, 버사는 어떤 식으로든 로체스터 부인의 자리에서 밀려나야 한다. 작품의 결말에서 버사는 화재로 인해 작품에서 사라지지만, 이미 제인이 그녀를 처음 대면하는 장면에서부터 인간 주체가 아닌 존재로 인식된다. 그 까닭은 버사가 광기로 인해 이성을 상실한 짐승과 같은 존재로 그려지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제인이 차지할 역할을 먼저 차지하고 있던 버사는 광인이라는 이유로 주체로 인식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녀를 대신해 로체스터 부인의 자리에 오른 제인에게 큰 걸림돌이 될 수 없다.

스피박은 버사를 제외시키기 위해 사용된 광기를 서발턴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그녀가 서발턴으로 분류될 수 있게 한다. 앞선 인용문에 등장한 “토착 서발턴 여성”이라는 단어에서 “토착”이라는 용어는 스피

15) Spivak (1999), p. 113.



박이 밝히듯 제 3세계를 대체하는 용어인데, 로체스터 부인의 자리에 있는 버사는 토착 여성이 아닌 크레올이기 때문에 토착 여성으로 보기는 애매하다. 스피박도 이 문제를 의식한 듯 각주를 붙여 버사가 왜 서발턴으로 분류되는지를 설명하여, 크레올 출신의 버사가 토착 서발턴 여성이 아닐지라도 광기로 인해 서발턴으로 분류될 수 있게 한다.

여기서 나는 “제 3세계 여성”이라는 용어에 반응한다는 뜻으로 “토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점을 덧붙여야겠다. 물론 이 용어는 서인도와 인도 맥락 둘 다에, 운송에 의한 제국주의 맥락에 동일한 역사적 공정함을 가지고 적용될 수는 없다. 서발턴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정의되고 논의할 것이다. 여기서는 서발턴 여성이 식민지의 부상하는 부르주아에 맞서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 부상 중인 부르주아가 여성해방에서 공유하는 뒤편은 또 다른 이야기임을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의미에서 『제인 에어』에 나오는 버사 메이슨은 서발턴이 아니다. 나중에 논의하겠지만, 버사는 광기 때문에 부르주아 계급 변동성으로부터 제거된다. 광인은 특별한 종류의 서발턴이다. 추방자의 범주처럼 서발턴이니티라는 범주 역시 여성들에게는 달리 작용한다는 점 또한 덧붙여 지적해야겠다.

I should also add that I use the word “native” here in reaction to the term “Third World woman.” It cannot, of course, apply with equal historical justice to both the West Indian and the Indian contexts nor to contexts of imperialism by transportation. The subaltern will be defined in the next chapter. Here suffice it to say that she is seen over against the emergent bourgeoisie of the colonies, whose share in female emancipation is another story. Bertha Mason in *Jane Eyre* is not, in that sense, a subaltern. As I will argue later, she is removed from bourgeois class mobility by her madness; the mad are subaltern of a special sort. It should also be added that the category of subalternity, like the category of exile, works differently for women.<sup>16)</sup>

이 구절은 광기의 버사를 서발턴에 포함시키는 것을 넘어 스피박의 서발턴 개념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구절이다. 스피박은 서발턴 개념을 제3세계라는 지역적 한정으로 사용하려 하지 않고 같은 속성을 가진 집단으로 확대시켰다. 서발턴이라는 단어의 유래를 살펴보면,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가 프롤레타리아를 지칭하는 용어 대신 서발턴이라는 단어를 검열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람시가 지칭하는 서발턴은 이탈리아 “지배 엘리트 계층의 헤게모니 통치 아래에서 고통을 겪는 낮은 계급의 사람이나 그룹”<sup>17)</sup>을 의미했다. 그들은 하나의 집단이라는 사회적, 정치적 의식이 없었고 그래서 국가의 지배적인 사상, 문화, 통솔력에 영향을 받기 쉬웠다. 스티븐 모튼(Stephen Morton)이 지적하는 것처럼, 스피박의 서발턴이 그람시와 유사성을 띠는 부분은 그들에게 일관된 정치적 정체성이 결여되었다고 보는 것이다.<sup>18)</sup> 부르주아 페미니스트들이 하나의 신념, 개인주의로서의 여성을 발견하는 것을 기치로 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서발턴 여성은 하나로 묶일 수 있는 집단이 아니다. 스피박이 덧붙인 주석에서처럼 광인과 추방자를 서발턴에 포함시키면, 서발턴은 여성에게 국한되지 않고 더 넓은 의미로 확장된다. 스피박이 인터뷰에서 서발턴이라는 단어가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론적인 엄격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밝힌 것 또한 같은 맥락이다.<sup>19)</sup> 이런 의미에서 서발턴은 서양 철학에서의 토착정보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항가족의 위치에 있는 제인이 가족의 범주로 진입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그 목적 달성의 여정에서

16) Spivak (1999), p. 117n.

17) El Habib Louai (2012), “Retracing the Concept of the Subaltern from Gramsci to Spivak: Historical Developments and New Applications,” *AJHC* 4.1. p. 6.

18) Stephen Morton (2003), *Gayatri Chakravorty Spivak*, New York: Routledge. pp. 47-49.

19) Gayatri Chakravorty Spivak (1990), *The Post-Colonial Critic: Interviews, Strategies, Dialogues* (ed. by Sarah Harasym), New York: Routledge. p. 141.

발생할 갈등을 예측할 수 있지만, 예측이 어려운 다양성의 서발턴 집단은 그들의 존재를 폐제시켜 버리는 편이 지배자의 입장에서는 훨씬 편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버사처럼 사용되고 폐제된다.

그렇다면 스피박이 버사의 폐제를 설명하기 위해 언급한 “토착 서발턴 여성”이라는 용어를 『철학』장의 칸트 이성 비판서 독해에서 등장하는 토착정보원과 연결시켜 이해해 보자. 버사의 존재가 필요는 하지만 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토착정보원의 폐제의 예시가 된다. 『세 여성의 텍스트』에서, 인간 이성의 힘을 강조하기 위한 “18세기 유럽의 더 유연한 윤리적 순간의 환유(metonym)”<sup>20)</sup>로 등장했던 칸트는, 지속적으로 스피박의 관심을 받는다. 『탈식민이성비판』이라는 제목 또한 칸트의 이성비판 3부작과 뿔 수 없는 증거이다. 올라 압둘카포르(Ola Abdalkafor)도 스피박 논의에서 칸트 독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탈식민이성비판』 전체의 논의가 칸트 읽기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한다.<sup>21)</sup> 그에 따르면 스피박은 칸트의 『판단력비판』에서 “미끄러짐”(slippage)의 순간을 잘 포착하여 토착정보원의 출현을 지적해 낸다. 스피박은 인류학자 조하네스 페이비언(Johannes Fabian)이 계몽 철학에는 토착정보원이 “부재한다”(absent)고 언급한 것에 영향을 받아, 칸트의 이성비판에서도 토착정보원이라는 같은 용어로 표현되는 존재를 찾아낸다. 하지만 스피박은 페이비언의 “부재한다”는 표현을 정신분석학 용어인 “폐제된다”(foreclose)로 바꾸었다.<sup>22)</sup> “폐제”(foreclosure)라는 용어는 스피박이 라캉의 정신분석학에서 차용해 온 것으로, 그 의미는 에고(ego)가 정동(affect)과 양립할 수 없는 생각을 거부하는 일종의 방어기제인데, 스피박이 “부재”를 “폐제”로 바

20) Gayatri Chakravorty Spivak (1985), “Three Women’s Texts and a Critique of Imperialism,” *Critical Inquiry*, 12.1. p. 248.

21) Ola Abdalkafor (2015), *Gayatri Spivak: Deconstruction and the Ethnic of Postcolonial Literary Interpretation*, Newcastle: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p. 15.

22) Abdalkafor (2015), pp. 24-25.

꿈으로써 토착정보원의 존재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끝까지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제한을 분명히 드러낸다.

그러면, 「철학」장에서 언급된 토착정보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스피박은 기존의 철학 읽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토착정보원에 주목하기 때문에, 스피박 논의의 이해를 위해서는 기존 철학 논의와 스피박의 칸트 읽기를 비교해 보아야 한다. 스피박이 토착정보원의 출현을 노린 부분은 칸트의 『판단력비판』의 숭고에 대한 논의인데, 칸트 철학에서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것처럼, 칸트 이성 비판에서 숭고 또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sup>23)</sup> 논의를 위해 단순화 시켜보면, 숭고의 역학이란 인간이 사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큰 대상을 만날 때 불쾌한 감정의 동요를 겪지만, 그 순간은 다시 이성의 한계를 마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성의 작용을 촉발시켜 그 대상을 인식 가능하게 하는 범주를 만들어 내는 일련의 과정이다. 즉, 불쾌를 동반했던 숭고의 순간은 인간 이성의 탁월함을 확인할 기회가 되고, 이로 인해 쾌감을 얻는 순간으로 바뀐다.

스피박은 이 모든 숭고의 역학을 가능하게 하는 계기에 존재하는 토착정보원에 주목했다.

그 텍스트들은 “유럽적인” 것이 인간의 표준이며 우리에게 세부사항과 명령을 제공한다는 점을 당연시한다. 하지만, 이 텍스트들에서조차도 토착정보원은 요구되고 폐제된다. 칸트의 경우, 이성적 의지에 자유를 허용해주는, 반성적 판단의 자율성을 출범시키기 위해 한 정적인 것의 타율성을 나타내는 예로서 토착정보원이 요구된다.

23) 『판단력비판』에 등장하는 숭고는 “단적으로 큰 것”이나 “일체의 비교를 넘어서는 큰 것,” “모든 관점에서 큰 것”을 의미한다. 칸트 비판에서 숭고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대상 안에 놓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유 방식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숭고는 단순히 큰 대상이 아닌 “감성적 현시가 부적합한” “이성개념의 현시”로 볼 수 있다. 숭고한 것의 감정은 마음의 동요를 특징으로 하며 “불쾌를 매개로 해서 가능한 쾌”이다(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역 (2012), 『판단력비판』, 서울: 아카넷. pp. 689-90. 참조).

They take for granted that the “European” is the human norm and offer us descriptions and/or prescriptions. And yet, even here, the native informant is needed and foreclosed. In Kant he is needed as the example for the heteronomy of the determinant, to set off the autonomy of the reflexive judgment, which allows freedom for the rational will;<sup>24)</sup>

승고의 순간에 상상력은 이성에게 “반성적 판단력”을 이행하게 함으로써, 이성의 한계로 일으켜진 불쾌는 이성의 확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쾌의 감정으로 변화하게 된다.<sup>25)</sup> 인식능력에 있어 상상력의 좌절을 가져왔던 승고의 순간은 동시에 이성의 우월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이로 인한 인간 이성의 탁월함에 대한 확신은 인간 이성에 자유를 부여한다. 스피박은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하여 서구 계몽 철학이 인간 이성의 탁월함을 찬양할 때, 계기를 제공하고 사라지는 토착정보원을 지적한다. 토착정보원의 존재는 버사와 같이 제인이 들어갈 자리를 확인해 주는 꼭 필요한 존재지만 거기에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다. 짐승 같은 형상으로 불쾌를 일으켰던 버사의 존재는 작품의 결말을 위해서는 제거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광기를 근거로 제거되고 제인이 그녀의 “알맞은” 자리를 채움으로써 작품은 쾌의 결말을 맺는다.

스피박은 『제인 에어』에서 버사의 죽음을 토착정보원의 폐제로 연결시킨다.

---

24) Spivak (1999), p. 6.

25) 『순수이성비판』(*Critique of Pure Reason*)에서 상상력은 주어진 잡다(the manifolds [das Mannigfaltige])를 종합하는 매개의 역할을 하는데, 상상력의 역할은 『판단력 비판』에서 좀 더 확장된다. 상상력은 종합의 과정에서 “보편이 주어져 있는 경우, 특수를 이 보편 아래에 포섭하는 판단력”인 “규정적 판단력”과, “오직 특수만이 주어져 있고, 판단력이 이 특수에 대하여 보편을 찾아내야 할 경우”인 “반성적 판단력”을 매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김상현(2006), 『칸트 미학에 있어서 감정과 상상력의 관계』, 『칸트연구』 17. p. 8. 참조).

1장에서 내가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다음과 같다. 미학적인 것을 위해 남겨진 계획된 구획에 있는 숭고의 계획되지 않은 자리에—제인 에어의 커튼을 친 은신처처럼 구조적으로 깊숙이 들어간 영역과 같은—칸트의 텍스트가 자연과 자유를 연결하도록 허용하는 토착 정보원의 폐제가 있다.

In Chapter 1, I have tried to show that, in the unplanned place of the sublime in the planned section reserved for the aesthetic—as structurally withdrawn as Jane Eyre’s curtained retreat—it is the foreclosure of the native informant that permits Kant’s text to bridge nature and freedom.<sup>26)</sup>

제인이 커튼이 쳐진 자신만의 공간에 있듯, 스피박은 『제인 에어』에 숭고의 자리가 있음을 직접 언급하는 위의 구절을 괄호 안에 넣어 서술했다. 자연에서 어떤 불쾌를 일으키는 커다란 존재라도 결국은 숭고를 거쳐 이성의 탁월성을 증명할 것임으로 이성은 무한히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 제인의 대항가족의 자리를 공간적 비유로 설명하는 부분에서 스피박은 “창조적 상상력”<sup>27)</sup>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칸트 비판의 상상력을 아는 독자라면 이 상상력이 제인의 위치를 공간적으로 표현하는 미학적 능력에만 한정되는 표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제인 넬러(Jane Kneller)에 따르면 칸트가 인간 주체의 이성에 대한 논의에서 감성적 영역으로 여겨졌던 상상력을 끌어냈기 때문에 학문적 논의로 연결시킬 수 있었다.<sup>28)</sup> 상상력을 통하여 불쾌의 감정을 이성적인 과정으로 극복하고 쾌로 옮겨가듯이 『제인 에어』에서도 “창조적 상상력”은 제인을

26) Spivak (1999), p. 135.

27) “창조적 상상력”이라는 단어는 의도적이리만큼 여러 번 사용된다. 칸트 철학에서 감성과 이성을 매개하는 상상력의 역할을 알고 있는 독자는 여기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Spivak (1999), p. 119, 120, 124).

28) Jane Kneller (1999), *Kant and the Power of Imagination*, New York: Cambridge UP. p. 4.

가족 범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사용된다. 작품의 초반에 제인은 가족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한 채로 주변화 되어 가족의 응접실이 아닌 응접실에 딸린 작은방에서 커튼 뒤에 이중으로 소외되며 앉아 있지만, 나중에 역전되어 가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상력”을 통해 짐승 같은 버사를 탁월한 이성으로 적절히 해결해 내는 “창조적” 행위가 필요했던 것이다.

결국, 스피박이 『제인 에어』를 다시 읽으며 바로 잡고 싶었던 것은 작품의 결말을 그저 여성 주인공의 성취로 읽어내는 부르주아 페미니스트들의 읽기 방식이다. 불쌍한 고아 출신 제인이 로체스터 부인의 자리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이 제인의 개인주의적 성취로만 여겨지는 것에 가려진 버사의 폐제는 말 그대로 “커튼 뒤에”<sup>29)</sup> 숨겨진 이야기이다. 버사의 목소리를 들려주겠다는 목적으로 쓰인 『광막한 싸가소 바다』와 같은 작품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스피박은 이 작품이 “버사의 인간성을 지켜준다”<sup>30)</sup>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한계를 지적한다. 스피박이 주목하는 장면은 앙뜨와네뜨(Antoinette)가 나르시스 적으로 토착 여성 티아(Tia)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마주보기-혹은 거울보기-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스피박은 “나르시스의 광기가 자신을 타자로 인식할 때이다”<sup>31)</sup>라며 광기를 인식의 문제로 연결시킨다. 앙뜨와네뜨가 티아와 자신을 나르시스 적으로 인식하는 것처럼, 타자를 자아처럼 읽어낼 때 바로 그 지점에서 문제(광기)가 생긴다. 이 장면은 유럽의 자아 형성하기와 타자의 형성-식민 주체로서의 타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별라가지적하듯이, 스피박의 서발턴 논의는 단순히 서발턴의 발화 문제가 아니라 식민 주체를 타자로 형성할 때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며 바로 이 부분에서 토착정보원이 만들어지는 것이다.<sup>32)</sup> 결국, 주체 형성 과정에서

29) Spivak (1999), p. 119.

30) Spivak (1999), p. 125.

31) Spivak (1999), p. 126.

버사는 토착정보원의 자리에 놓여 주체를 상실하고 타자가 되는데, 타자가 된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광기로 인해 주체를 빼앗긴 『제인 에어』의 버사나, 자아를 타자화 시킨 진 리스(Jean Rhys)의 앙뜨와네뜨의 광기나, 결론은 지배자의 제국주의 공리를 가능케 하는 주체의 상실일 뿐이다. 이런 이유로 버사가 왜 광기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며 버사에게 목소리를 주려 했던 리스의 이야기는 스피박이 보기에 『제인 에어』의 재각인일 뿐이다.

타자에게서 자아를 잃어내는 나르시즘적 행위는 부르주아 페미니스트에게 일종의 패턴과도 같다. 외모도 다르고 말도 통하지 않는 타자를 만날 때, 그들에 대한 글쓰기는 타자에게 투영한 자아 읽기가 된다. 스피박은 「국제적 틀 안에서의 프랑스 페미니즘」(“French Feminism in an International Frame”)<sup>33)</sup>에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1세계 페미니스트들이 특권 의식을 가지고 “여성”이라는 단일한 집단으로 모든 여성을 묶어내는 행위를 “자국화”(naturalization)라고 비판한다.<sup>34)</sup> 제국주의라는 배경이나 각자의 처지와 달리 여성이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3세계 여성들의 처지를 1세계 여성인 자신들과 같은 것으로 잃어내는 행위 말이다. 『프랑스 페미니즘』에 등장하는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의 『중국여성에 대하여』(*About Chinese Women*)도 마찬가지로의 패턴을 보인

32) Birla (2010), p. 100.

33) 이 에세이 전까지의 스피박은 미국 학계에 속하면서도, 프랑스 페미니즘과 활발히 교류해 왔다. 하지만 이 에세이를 기준으로 스피박은 프랑스 페미니즘과 선을 긋고, 탈식민 페미니스트로서의 발걸음을 내딛는다. 미국 페미니즘은 보이지 않는 여성의 목소리를 살리려는 노력을 하는 반면, 프랑스 페미니즘은 여성이 가부장 체제에서 부재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스피박은 가부장제에서 부재하는 여성을 되살리려는 노력 안에 다시 한 번 폐제되는 여성 서발턴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낀듯하다. “양심의 위기”를 느낀 스피박은 더 이상 프랑스 페미니즘의 대변인이 아닌 탈식민 페미니스트로서의 입장을 밝힌다(Gayatri Chakravorty Spivak (1998), *In Other Worlds: Essays in Cultural Politics*, New York: Routledge. pp. 184-211).

34) Spivak (1998), p. 187.



다. “고요한 눈들,” “많은 무리”로 묘사되는 중국 여인들은 크리스테바에게는 완전한 이방인으로 “꽤똥똥” 이쪽을 쳐다보고 있지만, “어떤 것도 시도할 수 없는 공동체”로 그려진다.<sup>35)</sup>

이 조용한 여성들과의 직면에서, 그녀의 질문은 그들에 대한 것 이라기보다는 그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후시안 농민들의 응시 앞에서 누가 말하고 있는가?” 이것 역시 내가 가장 일반적으로 그녀를 위치시키는 사상가의 무리의 특징일 수 있다. 서구의, 형이상학의, 자본주의의 타자와 접촉하려는 그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복되는 질문은 강박적으로 자기중심적이다. 우리가 공식적 역사와 철학에서 말하는 우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누구이고 (누가 아니고), 어떻게 우리인지 (그리고 아닌지)?

Her question, in the face of those silent women, is about her own identity rather than theirs: “Who is speaking, then, before the stare of the peasants at Huxian?” This is too might be a characteristic of the group of thinkers to whom I have, most generally, attached her. In the spite of their occasional interest in touching the other of the West, of metaphysics, of capitalism, their repeated question is obsessively self-centered: if we are not what official history and philosophy say we are, who then are we (not), how are we (not)?<sup>36)</sup>

크리스테바의 글쓰기 소재가 중국여성임은 확실하다. 그러나 중국여성도 소재에 그칠 뿐 주체로 발전하지는 못한다. 크리스테바의 중국 여성에 대한 관심은 “강박적”으로 보일 만큼 자아에 대한 질문으로 되돌아온다. 중국 여성들을 말없는 무리로 묶어 고요한 눈빛만 보내는 대상으로 그려놓은 후, 그들 앞에서 촉발되는 물음은 크리스테바 자신에 대한

35) Spivak (1998), p. 188.

36) Spivak (1998), pp. 188-89.

것이다. 인용문에 앞서 크리스테바는 여성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며, 남성의 기호로는 드러나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는 발언과 함께 여성 문제가 남성 문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차별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크리스테바의 글쓰기에서 “중국” 여성이 끼어 들 수 있는 곳은 없다. 결국 스피박이 지적하는 것은 부르주아 여성 페미니스트들이 여성 문제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문제를 단일화하는 중에 제국주의가 토착민들을 지배하기 위해 폐제시킨 것처럼 토착 여성 서발틴에게도 똑같은 폐제를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스피박이 계속해서 지적하는 서발틴의 폐제는 19세기 영문학에만 존재할까. 이런 의문을 가지는 중에 『세 여성의 텍스트』에 잠깐 언급되는 울프의 『덜러웨이 부인』이 눈에 띄었다. 스피박은 『제인 에어』에서 보여준 19세기의 문학사나 문학 비평이 에어리얼<sup>37)</sup>을 생산하는데 공모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후기 제국주의인 1920년대에는 “구성된 식민주체가 견고하게 틀을 잡았다”는 발언을 하면서 『덜러웨이 부인』을 언급한다. 스피박에 따르면, 1925년 작품인 『덜러웨이 부인』에 그려진 “기능적으로 어리석은 인도”와 실제 인도에서 생산되는 문학작품과 문화를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sup>38)</sup> 이런 이유로 본고는 다음의 논의에서 『제인 에어』와 달리 『덜러웨이 부인』에서 제국주의의 공리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를 읽어보려 한다. 스피박이 말한 대로 시대에 따라 달라진 점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기존의 『덜러웨이 부인』 읽기에도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37) 스피박은 호세 엔리끄 로도(Jose Enrique Rodó)가 라틴 아메리카 지식인이 유럽과 맺는 관계의 모델로 셰익스피어의 에어리얼을 언급한 것과, 1971년 로베르토 페르난데즈 레타마르(Robert Fernandez Retamar)가 이 모델을 칼리반으로 수정한 것을 언급한다. 그러나 에어리얼이나 칼리반은 스피박이 보기에 모두 신식민주의 지식인이다(Spivak (1999), pp. 117-18.).

38) Spivak (1999), p. 131.

### 3. 클라리사와 파티: 송고의 역학

내가 『델러웨이 부인』에 스피박의 서발턴 논의를 끌어들이려는 이유는 버사를 제인의 어두운 더블로 읽어낸 길버트와 구바의 비평 때문이다. 『델러웨이 부인』에서 주인공의 더블 설정은 그것을 설명해 내려는 많은 비평을 생산해 왔다. 특히 울프 자신이 모던 라이브러리(Modern Library) 서문에 그 두 인물을 더블로 설정함을 밝혔음에도, 실제 작품 내에서는 두 인물이 한 번도 만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많은 비평을 양성해 왔다. 울프는 더블 설정으로 “삶과 죽음, 온전함(sanity)과 광기(insanity)를 그리고 싶다”고 얘기했고, 나아가 『델러웨이 부인』이 “광기와 자살에 대한 연구”이며, “나란히 서 있는 정상인들과 비정상인들에 의해 보이는 세상”(the world seen by the sane & the insane side by side)에 대한 소설임을 밝혔다.<sup>39)</sup> 그러나 이 더블의 설정은 작가의 간단한 언급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스피박의 서발턴 개념이 적용된다면, 더블을 다른 관점으로 재해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작품에 설정된 더블의 문제는 여러 가지의 해석을 낳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자. 이 작품을 페미니즘 관점으로 읽는 허마이오니 리(Hermione Lee)는 이 더블의 만나지 않는 설정이 소설의 가장 주목할 만한 성취라 극찬한다. 소설 속의 두 인물은 전쟁 중인 배경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사람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도한 인물이며, “공동의 라이트모티프”(mutual leitmotif)인 “더 이상 두려워 말라, 태양의 열기를”(Fear no more the heat o’ the sun.)이라는 다짐을 반복하는데서 공통적으로 연결된다. 하지만, 어린 시절 언니의 죽음을 목도한 이후에 클라리사가 바깥 세상에 대한 인식을 잃지 않는 것과 달리, 전쟁에서 상사의 죽음을 목격한 셉티머스는 바깥세상과 그에 대한 반응 사이의 경계가 무

39) Michael H. Whitworth (2009), *Authors in Context: Virginia Woolf*, Oxford: Oxford UP. p. 136.

너져 광기에 이르고 만다.<sup>40)</sup> 허마니오니는 울프의 언급대로 더블 설정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두 가지 모습을 모두 그려냈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엘리자베스 에이블(Elizabeth Abel)은 더블의 설정을 전통적 플롯에 따른 것으로 읽어낸다. 여성이 가정의 플롯(domestic plot), 남성이 서사적 플롯(epic plot)을 담당하던 당시의 전통을 따라 더블이 설정되었는데, 셉티머스의 죽음은 남성 플롯의 상실을 가져오고 이 작품이 온전히 여주인공의 이야기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석하고 있다.<sup>41)</sup> 마리아 디바티스타(Maria DiBattista)는 셉티머스의 죽음과 이것을 깨닫는 클라리사를 아나그노리시스(anagnorisis)로 읽어낸다. 더블의 설정은 장치적인 효과로 광기와 온전함 사이의 구분을 흐릿하게 함으로써 그 둘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매우 인접한 것임을 드러내는 효과를 지닌다. 결국, 셉티머스의 죽음은 클라리사로 하여금 죽지 않고서도 죽음(fatality)에 도달하여 깨달음을 얻게 만들어 준다고 평가한 바 있다.<sup>42)</sup> 위의 비평들은 작가의 더블이라는 언급에 초점을 두어, 셉티머스의 죽음을 클라리사의 존재와 연결시키려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전쟁을 경험한 유일한 등장인물인 셉티머스를 매우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실제 작품의 마지막 클라이맥스로 여겨지는 파티 장면에서 셉티머스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클라리사의 모습은 단순한 깨달음으로만 설명해 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셉티머스의 죽음은 잠깐 동안 그를 진찰했던 윌리엄 브래드쇼(William Bradshaw)의 아내를 통해 “젊은 남자의 자살”<sup>43)</sup> – 심지어 이름도 불리지 못한다 – 로 클라리사에게

40) Hermione Lee (1977), “Mrs. Dalloway,” *Virginia Woolf’s Mrs. Dalloway*, New York: Chelsea. pp. 29-32.

41) Elizabeth Abel (1983), “Narrative Structure(s) and Female Development: The Case of Mrs. Dalloway,” *Virginia Woolf’s Mrs. Dalloway*, New York: Chelsea. p. 107.

42) Maria DiBattista (1980), “Mrs. Dalloway: Virginia Woolf’s Memento Mori,” *Virginia Woolf’s Mrs. Dalloway*, New York: Chelsea. p. 41.

43) Virginia Woolf (2009), *Mrs. Dalloway* (ed. by David Bradshaw), Oxford: Oxford

전해지는데,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클라리사는 먼저 “아”<sup>44)</sup>하며 애도가 아닌 탄식을 내뿜는다. 혼자만의 방으로 몰려나 청년의 죽음을 떠올려 보지만, 결국 그녀가 명상하는 것은 그의 죽음으로 촉발된 과거의 기억들이다. 어린 시절 부어틴에서의 피터(Peter Walsh)와 샬리(Sally Seton)와의 추억, 두려움을 느꼈던 순간이나 행복함을 느꼈던 순간들을 잠시 명상한 후, 클라리사는 집 맞은편의 노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파티를 여는 안주인으로서의 현실로 돌아온다. 그 어디에도 셉티머스라는 청년의 존재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없다. 마치 크리스테바가 중국 여인 무리를 보면서도 그들에 대해서가 아닌 자아에 대한 질문을 던지듯, 셉티머스의 죽음은 클라리사의 자아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뿐이다. 같은 방식으로 셉티머스의 존재를 클라리사의 깨달음을 위한 역할로 한정하는 비평가들은, 부르주아 페미니스트들이 버사의 폐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과 같다. 더블의 연결에만 초점을 둔 나머지 작품에서 사라진 셉티머스를 위한 온당한 이해는 부족하다.

『탈식민이성비판』의 『문학』장에서 언급된 『델러웨이 부인』은, 스피박의 또 다른 에세이 『차이의 여성』 (“Women in Difference”)에서 다시 한번 등장한다.<sup>45)</sup> 이 에세이에서 『델러웨이 부인』은 인도 작가 마하스웨타 데비(Mahasweta Devi)의 『도울로티』(“Douloti”)와 비교되고 있다. 스피박은 데비가 그린 “나라”(Nation)로서의 인도와 『델러웨이 부인』의 인도는 확연히 대조되며, 후자에서 그려지는 인도는 서구에서 늘 그렇듯 “막연하고”(indeterminate) “무기명의”(uninscribed) “제국”을 상징하는 “덩어리”라 평가한다. 실제 인도와 친숙한 스피박의 시선에서 『델러웨이 부인』의 인도는 그 나라 작가의 것과는 매우 다를 수밖에 없고, 피상적인 덩어

---

UP. p. 156.

44) Woolf (2009), p. 156.

45) Gayatri Chakravorty Spivak (1993), *Outside in the Teaching Machine*, New York: Routledge. pp. 87-88.

리로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인 마커스(Jane Marcus), 캐시 J. 필립스(Kathy J. Philips), 헬렌 카(Helen Carr)는 울프를 제국 주제를 다루는 작가로 읽어냈다.<sup>46)</sup> 필립스에 따르면, 울프의 식민지 건설에 대한 지식은 상당했다. 울프는 1917년 식민지에 대한 글을 쓰는 남편 레너드 울프(Leonard Woolf)를 위해 자료 조사를 돕기도 했고, 1920년에 출간된 레너드 울프의 『아프리카의 제국과 무역』(*Empire and Commerce in Africa*)을 두 번이나 읽었으며, 훌륭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필립스는 이런 전기적인 부분을 근거로 울프의 작품에 제국주의와, 전쟁과 젠더 문제가 혼합되어 있다고 주장한다.<sup>47)</sup> 따라서 이 논문은 필립스의 탈식민주의적 견해에 더해, 스피박의 서발턴 개념을 이 작품에 적용하여 제국주의라는 틀에서의 의미를 파악해보려는 것이다.

셍티머스는 클라리사의 더블로 작품에서 꼭 필요하지만 동시에 폐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칸트 이성 철학에서의 토착정보원과도 같다. 가장 셍티머스의 죽음을 인간적으로 느끼고 잠깐 동안 조용한 곳으로 물러나 명상해 주는 인물이 클라리사인데, 그녀의 반응은 셍티머스를 위한 것이 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반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한 것

---

46) 마커스는 1992년 『브리타니아가 『파도』를 다스린다』(“*Britannia Rules The Waves*”)에서 울프의 스타일이 가장 잘 드러난 작품 『파도』는 인종과 제국의 신랄한 비평이라고 주장하며, 울프 비평에 처음으로 제국 주제를 들여왔다(Jane Marcus (2004), *Hearts of Darkness: White Women Write Race*, New Brunswick: Rutgers UP.). 그 뒤를 잇는 필립스는 “평가되지 않는 정치적 풍자기”로 울프를 평가하며, 울프의 작품이 전 지구적인 영제국의 지배의 유지와 동반하는 모든 문제들을 폭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울프 전작에서 제국 주제를 읽어낸다. 이러한 제국 주제에 대한 관심은 결국 2010년 『케임브리지의 버지니아 울프 안내서』(*The Cambridge Companion to Virginia Woolf*)의 개정판에 카의 『버지니아 울프, 제국과 인종』(“*Virginia Woolf, Empire and Race*”)이 추가되는 결과를 낳았다. 울프와 제국의 연결은 이제 뗄 수 없는 주제이다(Mark Gaipa (1996), “When All Roads Lead to Empire,” *ELT* 39.1. 참조).

47) Kathy J. Phillips (1994), *Virginia Woolf against Empire*, Knoxville: U of Tennessee P. p. xii.

이다. 마치 크리스테바가 자아에 대한 질문을 위해 중국 여인들의 존재가 사용된 것과 유사하다. 뒤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1차 세계 대전에 참가했던 셉티머스의 전쟁 경험은 이성적으로 알맞게 정리되지 못했고, 결국 그를 광기로 내몬다. 광기어린 셉티머스에게 영국사회가 주는 처방은 사회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격리하는 것이다. 셉티머스를 아내로부터—아내 레지아(Rezia Smith)는 광기의 남편이 계속해서 사회에 남아 있을 수 있게 붙잡아 주는 역할이므로 그녀와도 분리가 필수적이다—그리고 사회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 계단을 오르는 의사 홈즈(Dr. Holmes)의 발소리는 셉티머스를 압박하고, 결국 셉티머스는 창문 밖으로, 생의 밖으로 도망치고 만다. 그러나 이 죽음은 상원의원인 리처드(Richard Dalloway)와 의사 브래드쇼에 의해 그저 법안을 상정하기 위한 계기로 사용될 뿐이다.

레베카 월코위츠(Rebecca L. Walkowitz)는 더블로 설정된 셉티머스의 죽음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비평들과는 반대로, 왜 클라리사가 살아 남았는지에 주목한다. 월코위츠는 클라리사가 당시에 만연한 전쟁의 비극적 참상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사회적 예법”(social decorum)<sup>48)</sup>을 터득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파티를 준비하는 클라리사가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을 그러모으는 장면에 주목한다.

얼마나 수없이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던가. 그리고 항상 같은 미세한 응축! 거울을 보면서 그녀는 입술을 꼭 오므렸다. 그러자 얼굴에 구심점이 살아났다. 예리하고, 화살 같고, 분명함—그것이 그녀 자신이었다. 그녀 자신이 되려는 어떤 노력, 어떤 부름이 있어 조각조각들을 다 모았을 때의 그녀 모습이었다. 그녀 혼자만이 자신이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양립할 수 없는 것들로 된 존재들인

48) Rebecca L. Walkowitz (2006), *Cosmopolitan Style: Modernism Beyond the Nation*, New York: Columbia UP. p. 91.

지를 알았다. 그래서 세상에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를 구성하여 하나의 중심, 하나의 다이아몬드로 정돈했다. 거실에 앉아서도 만남 장소를 만들 수 있는 여인, 어떤 활기 없는 인생들에게는 의심할 여지 없이 찬란한 빛, 외로운 이가 찾아올 수 있는 피난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녀는 젊은 사람들을 도왔고 그들은 그녀에게 감사했다. 그녀는 언제나 한결같으려 노력했다. 그녀의 모든 다른 면모들은 결코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예를 들면 결점들, 질투심, 허영, 그녀를 오찬에 초대하지 않은 브루턴 여사에게 품어지는 의심들. 그녀 생각에 (마침내 머리를 빗으며) 그것은 정말로 비열하다! 자, 드레스가 어디에 있지?

How many million times she had seen her face, and always with that same imperceptible contraction! She pursed her lips when she looked in the glass. It was to give her face point. That was her self—pointed; dartlike; definite. That was her self when some effort, some call on her to be her self, drew the parts together, she alone knew how different, how incompatible and composed so for the world only into one centre, one diamond, one woman who sat in her drawing-room and made a meeting-point, a radiancy no doubt in some dull lives, a refuge for the lonely to come to, perhaps; she had helped young people, who were grateful to her; had tried to be the same always, never showing a sign of all of the other sides of her—faults, jealousies, vanities, suspicions, like this of Lady Bruton not asking her to lunch; which, she thought (combing her hair finally), is utterly base! Now, where was her dress?<sup>49)</sup>

파티를 위해 거울을 보는 클라리사는 거울 속의 자신을 대면하는데, 이 거울보기를 통해 하는 일은 그녀만이 알고 있는 “양립할 수 없는” 자신의 부분들을 한데 모으는 것이다. 월코워츠는 클라리사가 거울을 보며, 자신의 부정적인 면들, “결점, 질투심, 허영, 의심” 같은 것을 드러내지

49) Woolf (2009), pp. 31-32.



않게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클라리사는 언니 실비아의 죽음을 목격한 경험<sup>50)</sup> 또한 같은 방식으로 묻어두는데, 월코위츠는 이것을 사회적 예법으로 부르고 클라리사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근거로 든다.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 셉티머스와는 달리, 부정적인 감정을 감출 줄 아는 클라리사는 셉티머스의 죽음을 듣기 전까지 죽음에 대한 감정을 드러낸 적이 한 번도 없다. 필립스가 클라리사를 평가할 때, 영국 사회와 평행을 이루며 “안주인”으로서 파티를 열고 전체 사회를 “굳건히 만드는”(stiffen) 것을 나타내는 인물로 보는 것처럼,<sup>51)</sup> 이 장면은 클라리사가 제국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드러내 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이 거울보기 장면은 결점을 가린 자신을 세상의 중심으로, 사교의 중심으로 위치시키고, 따분한 이들과 외로운 이들에게,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돕는다는 표현으로 클라리사를 영국여왕과 같은 위치에 놓는다. “중심”이라는 단어와 바꿔 쓴 “다이아몬드”는 아름다움 뿐 아니라 제국을 환유하는 단어로 읽을 수 있다. 필립스의 주장대로 클라리사가 파티를 여는 바로 그날 열리는 버킹엄 궁전(Buckingham Palace) 파티를 등치시킨다면, 정치인들이 여럿 모이는 저녁의 파티를 준비하는 클라리사의 모습은 더 큰 틀에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작품에서 제국에 대한 이야기가 있음을 기억한 채로, 클라리사의 거울보기 장면을 앞서 언급한 칸트의 숭고 개념을 통해 이해해 보자.<sup>52)</sup> 인용의 마지막 부분에서 거울을 보며 자신을 그러모으는 클라리사

50) Woolf (2009), p. 66.

51) Phillips (1994), p. 5.

52) 로레인 심(Lorrain Sim)도 울프가 칸트를 읽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울프 작품에서 숭고가 드러난다며, 아마도 블룸스버리 그룹의 다른 일원들이 칸트 읽은 것을 함께 나누었는지 모른다고 추측한다(Lorrain Sim (2016), *Virginia Woolf: The Patterns of Ordinary Experience*, New York: Routledge.). 크리스틴 프로울라(Christine Froula)도 울프가 칸트의 세 번째 비판서(『판단력비판』)를 읽지 않았겠지만, 칸트에 대한 논문을 쓴 G. E. 무어(G. E. Moore)의 『윤리학 원론』(*Principia*

는, 피상적으로 거울을 보는 여인이나, 월코위츠가 해석하는 것처럼 올바른 예법을 실천하는 의미와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클라리사의 거울보기는 단지 브루틴 여사의 정치적인 오찬모임에 초대받지 못한 불쾌를 극복하기 위한 데에서 시작되었는데, 부정적인 감정을 이성의 작용으로 알맞게 처리하고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사교의 구심점 역할을 가능케 하는 거울보기 장면은 스피박의 『판단력비판』 독해와도 유사하다.

“숭고한 것의 감정은 미감적인 크기 평가에서 상상력이 이성에 의한 평가의 부적합함에서 오는 불쾌의 감정이다.” 그러나 “최대의 감성적 능력이 부적합하다는 바로 이 판단”은 이성적이고 올바르기 때문에, “일깨워지는 쾌감이다.” 감각을 넘어서는 이성의 우월성은 “초감성적 사명의 감정을 우리 안에 환기한다.” 숭고에 의한 불쾌를 통해 상상력의 부적합성을 느끼도록 프로그램 되어있고 (따라서 이성의 우월성으로 순회하면서), 더 정확히는 조율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다.<sup>53)</sup>

“The feeling of the sublime is a feeling of pain arising from the want of accordance between the aesthetical estimation formed by the imagination and the same formed by reason.” But since this “judgment of the inadequacy of our greatest faculty of sense” is reasonable and correct, “a pleasure [is] excited.” The superiority of the rational over the sensible “arouses in us the feeling of our supersensible determination” (*CJ* 96-97). It is not too excessive to say that we are programmed or, better, tuned, to feel the inadequacy of the imagination (thus tripping the circuit to the superiority of reason) through the pain incited by the Sublime.<sup>54)</sup>

*Ethica*)이나 로저 프라이의 예술에 관한 비평들이나 클리브 벨의 『예술』(*Art*)을 읽었음에 틀림없다고 지적하며, 예술과 자유 사이의 칸트의 이론적인 연결을 오픈 글쓰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Christine Froula (2005), *Virginia Woolf and the Bloomsbury Avant-Garde: War, Civilization, Modernity*, New York: Columbia UP. p. 374).

53) 칸트 (2012), p. 266. 참조.

파티를 위해 몸치장을 하는 클라리사의 거울보기 장면은 단순히 치장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남에게 보이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가리고 하나의 응축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 승고를 연결시키는 것은 너무 지나친 비약으로 여겨질지도 모르지만 이 장면은 앞 선 장에서 다루었던 승고의 역학과 매우 유사하다. 칸트의 승고가 대상 인식으로 일어나는 것이라면, 클라리사의 불쾌감은 브루턴 여사의 오찬에 초대받지 못하는데서 일어난다. 대상 인식이 아닌 사건으로 인한 불쾌감일지라도 감정적 불쾌를 이성의 작용으로 왜로 바꾸는 과정 자체는 승고의 과정과 유사하다. 더군다나 이 승고의 과정에서 감추어지는 수많은 결점들은 마치 폐제되어야 하는 토착정보원과 같다. 필립스가 주장하듯 클라리사를 여왕으로 본다면, 클라리사의 승고는 여왕의 승고로 읽힐 수 있고, 여기에는 제국주의의 밝은 면 뒤에 숨겨진 수많은 토착정보원이 폐제되어 있다.

클라리사가 계몽 철학의 승고를 실천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또 한 곳 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딸인 엘리자베스(Elizabeth Dalloway)의 가정교사를 자신의 인식으로 축소시켜 버리는 장면이다. 독일 출신의 킬먼(Doris Kilman)은 그 출신 배경을 이유로 모든 계급에서 소외되는 여성 서발턴으로 구별된다. 클라리사가 자신의 딸 엘리자베스와 친밀한 유대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 킬먼은 엘리자베스와 매우 가까이 지낸다는 이유로 클라리사와 갈등을 빚는 인물이다.

기묘했다, 킬먼 양이 거기에 서 있는데, (그녀는 그렇게 서 있었다. 원시시대의 전투를 위해 무장한 아주 옛날의 괴물의 힘과 침묵으로) 어떻게 초마다 그녀의 생각이 줄어드는지, 어떻게 증오가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생각에 대한) 부서져 내리는지, 어떻게 그녀가 악의를 잃어버리는지 기묘했다. 그녀의 크기는 점점 단지 방수 코트를 입은 킬먼이 되었다. 클라리사가 그녀를 돕고 싶어 했었다는

54) Spivak (1999), p. 10.

것을 하늘만이 아신다.

이 괴물이 줄어드는 것에 클라리사는 웃었다.

Odd it was, as Miss Kilman stood there (and stand she did, with the power and taciturnity of some prehistoric monster armoured for primeval warfare), how, second by second, the idea of her diminished, how hatred (which was for ideas, not people) crumbled, how she lost her malignity, her size, became second by second merely Miss Kilman, in a mackintosh, whom Heaven knows Clarissa would have liked to help.

At this dwindling of the monster, Clarissa laughed.<sup>55)</sup>

디바티스타는 다음의 장면을 지적하며, 킬먼에게 위협을 느낀 클라리사가 애써 차별을 통해 심리적인 승리를 이뤄낸다고 평가한다.<sup>56)</sup> 그러나 이 장면은 심리적 승리라기보다는 일종의 인식론적 폭력(epistemic violence)이다. 프로이드는 칸트의 숭고 이론에서 “이성의 중개를 통해 심연을 무서운 것에서 숭고한 것으로 변형하는 것”을 “폭력적 이행”으로 보았다.<sup>57)</sup> 스피박은 『제인 에어』의 제인이 허구적 타자로서의 연출을 통해 개인주의적 페미니즘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제국주의의 일반적인 폭력을 드러내는 인식론적 폭력”으로 읽은 바 있다.<sup>58)</sup> 물론 이 장면에서 킬먼과 클라리사는 서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딸인 엘리자베스를 중간에 두고 대결 구도를 펼치고 있지만, 독일 출신이라는 이유-분류하자면 추방자와 유사하다-로 소외된 계급, 일종의 서발턴인 킬먼을 지배계층인 클라리사가 인식으로 제압해 버리는 것은 충분히 인식론적인 폭력으로 읽을 수 있으며 이것은 타자를 고려하지 않는 자아의 숭고이다.

---

55) Woolf (2009), pp. 106-107.

56) DiBattista (1980), p. 54.

57) Spivak (1999), p. 15.

58) Spivak (1999), p. 127.

#### 4. 광기의 셉티머스: 더블이 아닌 서발턴

버사가 광기로 서발턴의 위치에 놓이게 된 것처럼 셉티머스는 광기로 인해 서발턴으로 분류될 수 있고, 그를 세상과 단절되지 않게 붙들어 주는 역할의 외국인 아내, 레지아도 여성 서발턴으로 분류될 수 있다. 주인공 공 클라리사가 송고의 역할을 통해 계속해서 불쾌한 것들을 꽤로 바꾸며 살아남는 동안, 그것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셉티머스는 브래드쇼와 리처드, 그리고 리처드와 이어지는 브루튼 여사와 수상 등의 지배계층에게 토착정보원으로 이용되고 만다. 더블 설정에서 살아남은 클라리사에게 초점을 두는 대부분의 작품 해석과 반대로, 마린 고리스(Marleen Gorris)는 이 작품을 영화화 하면서 1923년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에는 그려지지 않은, 셉티머스가 참전한 1918년 이탈리아 전쟁 장면을 추가한다.<sup>59)</sup> 작가 울프가 셉티머스의 전쟁 장면을 그리지 않은 것처럼, 작품 내에도 그리고 비평가에게도 전쟁을 경험한 셉티머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가족이나 지인의 죽음을 경험한 상류층 사람들이 『달리웨이 부인』에서 예전과 다를 바 없이 바자회를 열고<sup>60)</sup> 파티를 준비하는 것과, 실제 눈앞에서 죽음을 겪은 참전군인 셉티머스의 충격은 다를 수밖에 없지만 작품 어디에도 그 충격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셉티머스는 영국 출신이지만 이탈리아 전쟁에 참전 후 이탈리아 여성인 레지아를 아내로 맞아 영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미카엘 휘트워스(Michael H. Whitworth)가 지적하듯, 작품의 화자는 지속적으로 셉티머스가 영국인으로서 경험하는 문화가 다른 이들과 구별되고 있음을 드러

59) 에반스(Evans)의 죽음 장면을 맨 앞에 위치시킴으로 고리스의 영화는 이 작품의 배경인 1차 세계 대전의 무거운 분위기를 극대화 시켰다(Walkowitz (2006), p. 90).

60) 작가는 전쟁으로 인해 가족의 죽음을 경험한 여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나열하는데, 그중 벅스버러(Bexborough) 부인은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존의 사망 소식을 듣고 바자회를 개최한다(Woolf (2009), p. 4).

내 준다. 비록 전쟁 전에 영국에서 일하는 청년이었지만, 셉티머스는 영국에 대한 생각이 매우 제한적이며 충분한 교육도 받지 못한 것으로 그려진다.<sup>61)</sup> 그에 더해 전쟁의 충격으로 “비정상”으로 변화한 셉티머스는 더 소외된다. 아직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외국인 레지아는 남편을 돕고 싶어 하지만, 그녀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셉티머스를 권위적으로 통제해버릴 “가부장적인 의학 전문가”(patriarchal medical profession)<sup>62)</sup>에게 이끌어 통제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공교롭게도 이 작품에서 “이성적”(reasonable)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인물은 유일하게 셉티머스이다. 셉티머스를 광기로 인한 서발턴, 즉 다른 주체에 의해 그 자신의 주체를 상실하는 인물로 보려는 이 글의 목적을 생각할 때, 셉티머스가 “이성적”이라는 표현은 매우 아이러니하다. 그러나 오히려 이 표현 때문에 서발턴으로서의 셉티머스는 더 부각된다. “이성적”이라는 표현은 작품 전체에 두 번 등장하는데, 그 두 번은 모두 셉티머스가 에반스(Evans)와 조우할 때이다. 고리스가 강조하고 싶었던 에반스의 죽음은 작품 내에서는 “에반스가 죽었을 때”라는 단 한 줄로 그려진다.

그러나 에반스가 (그를 딱 한 번 본적이 있는 레지아는 그를 ‘조용한 사람,’ 건장한 빨간 머리의 남자, 여자와 동석한 자리에서는 내성적이었던 것으로 회상했다), 이탈리아에서, 휴전 바로 직전에 죽었을 때, 셉티머스는 감정을 드러내거나 우정의 종말을 인식하기는 커녕 별다른 느낌이 없고 매우 이성적이라는 것에 자축했다. 전쟁이 그를 가르쳤다. 그것은 숭고한 것이었다.

But when Evans (Rezia, who had only seen him once, called him ‘a

61) Whitworth (2009), p. 137.

62) Anna Snaith (2000), *Virginia Woolf: Public and Private Negotiations*, New York: Palgrave. p. 27.

quiet man', a sturdy red-haired man, undemonstrative in the company of woman), when Evans was killed, just before the Armistice, in Italy, Septimus, far from showing any emotion or recognizing that here was the end of friendship, congratulated himself upon feeling very little and very reasonably. The War had taught him. It was sublime.<sup>63)</sup>

친구의 죽음을 무감각한 감정으로 겪어내는 셉티머스의 이성적 반응은 칸트 이성의 숭고와는 다르다. 전쟁은 셰익스피어와 이자벨 양(Miss Isabell Pool)을 위해 자원입대한 셉티머스에게 그동안 부족했던 “남자다움”을 “즉각적으로” 준다. 남자다움을 얻게 된 셉티머스는 전쟁터에서 승진하고 그의 상사 에반스의 애정을 받지만, 친밀한 관계를 나누었던 에반스의 죽음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감정 없이 받아들이는 모습은 지나친 남자다움으로의 변모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위 구절에서 셉티머스는 에반스의 죽음에 감정 없이 반응하는 자신에 대해, “이성적”이라는 표현으로 자축한다. “전쟁이 그를 가르쳤다”라는 문장 뒤의 “그것은 숭고한 것이었다”의 주어 “그것”은, 전쟁으로도 혹은 전쟁이 그에게 가르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숭고라는 단어를 바로 칸트의 숭고로 등치시키는 것은 알맞지 않다. 오히려 이 단어의 사용은 숭고가 셉티머스의 상황에 맞지 않게 억지로 덮어 씌워진 느낌을 준다. 칸트의 숭고를 겪은 불쾌는 꽤로 바뀌어야 하지만 영국으로 돌아온 셉티머스가 에반스의 유령을 보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셉티머스의 무감각함은 숭고의 역학을 거친 이성의 승리라기보다는 전쟁이 가르쳐준 죽음에 대한 무력함의 위장으로 볼 수 있다. 전쟁터의 참호 안에서 인간의 죽음을 목도하며 그것을 애써 이해해보려는 셉티머스의 숭고는, 그가 이해해보려 애썼지만 이해되지 않았던 셰익스피어처럼, 그에게 알맞은 것이 아니었다. 결국 죽음을 목도한 셉티머스의 경험은 이성으로 해결되지 못한 채 셉티

63) Woolf (2009), p. 73.

머스를 광기로 이끈다. 이 광기가 셉티머스의 주체성을 박탈하는데 사용된다는 점을 떠올릴 때, “이성”과 “숭고”가 등장하는 위의 예문은 부르주아 페미니스트들이 3세계의 여성들에게 여성이라는 단일한 “자국화”를 강요한 것과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셉티머스가 이 “자국화”에 걸맞지 않는 서발틴임은 그의 광기에서 여실히 증명된다. 레지아의 손에 끌려 신경증 전문가인 브래드쇼에게 진찰을 받으러 가는 길에서, 셉티머스는 죽은 에반스와 조우한다. 휴전 이후, 다시 말해서 이미 죽음을 목도하는 경험 이후에, 셉티머스는 숙박을 배정받은 밀라노의 하숙집에서 레지아를 만났고, 더 이상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당혹감이 엄습하던 저녁에 그녀와 약혼을 한다. 함께 영국으로 돌아온 후의 5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셉티머스는 에반스의 죽음 이래로 시작된 무감각의 상태가 지속된다. 죽음을 이성적으로 이겨내도록 했던 숭고는 셉티머스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아무 맛도 느끼지 못했고<sup>64)</sup> 아내의 외롭고 불행하다는 울음에도 아무런 느낌도 들지 않았다.<sup>65)</sup> “그는 판단할 수 있었고”(He could reason)<sup>66)</sup> 단테처럼 어려운 책을 읽거나 계산을 할 수도 있었지만 여전히 느낄 수 없었고 “아무 것도 그 상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었다.”<sup>67)</sup> 참전 이전과 이후의 변화된 셉티머스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는 예전에 그가 매혹되었던 셰익스피어를 읽을 때이다. 그러나 예전처럼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더 이상 아름답고 매혹적인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겨움과 증오와 절망”(loathing, hatred, despair)<sup>68)</sup>이었다. 레지아는 세상에서 벗어나려는 셉티머스를 계속 붙들어 주는 역할을 하지만, 남편이 내놓고 “자 이제 우리

64) Woolf (2009), pp. 74-75.

65) Woolf (2009), p. 77.

66) Woolf (2009), p. 75.

67) Woolf (2009), p. 77.

68) Woolf (2009), p. 75.



죽자'69)며 공공연히 죽음을 이야기할 때 외부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의 장면은 홈즈에게 추천을 받아 신경 전문의에게 가던 길에 공원에 앉아 쉬는 부분이다.

나뭇잎 한 장이 바람결에 떨리는 광경을 보는 것은 절묘한 기쁨이었다. 하늘 저 위에서는 제비들이 날아 내리다 벗어나서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빙글빙글 날아다녔지만, 그러면서도 항상 마치 고무줄이 그들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완벽한 통제를 하고 있었다. 파리들도 오르고 내리고 했다. 해는 순수하게 좋은 기분으로 부드러운 금빛으로 눈부시게 하며, 놀리듯, 이번에는 이 잎사귀, 다음에는 저 잎사귀를, 이따금은 어떤 줄기도, 비추었다. 이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차분하고 이성적이며, 있는 그대로 평범한 사물들로 만들어져 있는, 진실 그 자체였다. 아름다움, 그것은 이제 진실이었다. 아름다움은 모든 곳에 있었다.

To watch a leaf quivering in the rush of air was an exquisite joy. Up in the sky swallows swooping, swerving, flinging themselves in and out, round and round, yet always with perfect control as if elastics held them; and the flies rising and falling; and the sun spotting now this leaf, now that, in mockery, dazzling it with soft gold in pure good temper; and now and again some stalks—all of it, calm and reasonable as it was, made out of ordinary things as it was, was the truth now; beauty, that was the truth now. Beauty was everywhere.<sup>70)</sup>

이 장면에서 셉티머스는 다시 한 번 서발턴임을 증명한다. 칸트 철학의 숭고는 셉티머스에게는 적합한 것이 아니었다. 셉티머스는 인간에 대해서는 역겨움을 느끼지만 자연을 보면서도 기쁨을 느끼는데, 리젠트 공원에서 나뭇잎의 움직임이나 제비, 파리, 햇빛이 비추는 잎사귀, 줄기를

69) Woolf (2009), p. 56.

70) Woolf (2009), p. 59.

보며 셉티머스는 “아름다움”을 느끼고 “진실”로 받아들인다. 마치 칸트의 인간 이성이 자연의 합목적성을 바라보고 아름다움에서 쾌를 발견하는 것과도 같다. 그러나 바로 이 아름다움의 자연에서 죽은 에반스가 등장한다. 그는 나무 뒤에서 “죽은 자들은 테살리아에 있고” “거기서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노래를 부른다.<sup>71)</sup> 자연의 아름다움이 진실이 되는 순간에, 아름다운 자연의 뒤에서 죽었던 에반스가 노래를 부르며 그에게 다가올 때, 셉티머스의 광기는 극에 다다른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흐릿해진 눈앞의 광경을 보며, 다른 사람을 볼 수 없는 그 광경 앞에 셉티머스는 소리를 지르며 비정상적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가 세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꼭 붙들어 얹히는 곁에 있는 레지아만이 셉티머스와 세상을 연결해 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이성적”으로 표현되었던 셉티머스는 오히려 토착정보원의 역할을 해야 하는 서발턴이다. 스피박이 『탈식민이성비판』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성적 의지에 자유를 허가해 줄 반성적 판단력의 자율성을 출발시키기 위해”<sup>72)</sup> 셉티머스는 철저하게 필요한 존재였고 그를 위한 법안과 통제가 시작될 때 서둘러 폐제되어야 한다. 참전으로 인한 정신적 쇼크가 분명한 셉티머스가 영국 사회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를 살펴보자. 참전 군인들의 전쟁 신경증(shell shock)은 당시 사회에서 큰 이슈였지만, 울프가 배경으로 삼은 1923년은 이미 전쟁 신경증이라는 용어가 오해되고 있다는 1922년의 정부 위원회의 발표 이후이다.<sup>73)</sup> 울프가 셉티머스에게 전쟁 신경증과 유사한 광기를 주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병명이나 치료법이 아닌 지배 세력이 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이다.

셉티머스에게 내려진, 유일하게 그의 손을 붙잡아 세상과 연결해 주는 레지아와 떨어져야 하는 처방은 셉티머스를 서발턴으로 읽을 때 그 의미

71) Woolf (2009), p. 59.

72) Spivak (1999), p. 4.

73) Michael (2009), pp. 169-70.

가 분명히 드러난다. 인종이나 출신이 다르지 않은 셉티머스가 여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폐제시켜버린다면,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토착민<sup>74)</sup>이 폐제될 가능성은 다분하다. 그를 처음 진찰한 의사 홈즈도, 신경증 전문가라는 의사 브래드쇼도 그에게 광기라는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레지아를 위한 예의일 뿐이다. 모두가 자신에게 신호를 보낸다고 해석한다거나 혼자서 계시를 받아 뭔가를 종이에 끄적거리고 아내에게 죽음을 원하는 모습을 읽는 독자가 셉티머스를 온전한 인물로 읽어내기는 어렵긴 하지만, 셉티머스에게 광기를 선언해야만 의사를 대표로 하는 지배계급이 원하는 대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셉티머스의 광기를 진단하는 장면에서 실제 그의 증상과 병명에 대한 관심은 찾기 어렵다.

“동정심이 있는 의사, 인간의 영혼을 이해하는 의사”<sup>75)</sup>로 평판이 난 브래드쇼가 셉티머스를 진찰하는 장면은 서발턴으로서의 셉티머스를 부각시킨다. 셉티머스에게 진단과 격리된 휴식의 치료법이 처방되기까지의 장면은 의사와 환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권위자로서 사회의 질서에 어긋나는 “사례(case)”를 통제하는 장면이다. 물론 위에 언급했듯이 셉티머스에게는 광기로 평가될 만한 증상들이 있지만, 의사는 그 증상의 원인이나 구체적인 특징 등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2-3분 만에 “균형 감각이 없는”<sup>76)</sup> 위중한 병이라 진단을 내린다. 레지아가 옆에서 셉티머스의 참전 시절의 이야기를 늘어놓지만, 브래드쇼는 거의 관심도 보이지

74) 이 작품에서 토착민의 등장이 없음을 지적하는 비평이 있다. 벨러리 리드 히먼(Valerie Reed Hickman)은 스피박이 『델러웨이 부인』에 등장하는 인도가 “기능적으로 어리석은 인도”라고 비판한 것에 반대하며, 인도가 클라리사와 피터 사이의 과거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읽기라는 측면에서 『델러웨이 부인』의 인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읽어낸다(Valerie Reed Hickman (2014), “Clarrisa and the Coolies’ Wives: Mrs. Dalloway Figuring Transnational Feminism,” *MFS* 60.1.).

75) Woolf (2009), p. 81.

76) Woolf (2009), p. 82.

않았고 그런 정보 없이도 진단을 내린다. 그에 더해, 시골 요양원으로 보내야 한다는 처방에 레지아가 반대 의사를 비치자, 브래드쇼는 둘에게 “법의 문제”<sup>77)</sup>를 끌어들이며 처방을 강요한다. 셉티머스가 자살한 후, 클라리사의 파티에 참석한 브래드쇼가 리처드에게 “어떤 환자”<sup>78)</sup> 이야기를 전하며 “폭탄 쇼크의 후유증”<sup>79)</sup>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보면, 이 처방을 내리는 장면에서는 아직 리처드가 “하원에서 통과시키려는 법안,”<sup>80)</sup> 즉 셉티머스에게 요양을 강제하는 법안은 아직 상정되지 않았음이 틀림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브래드쇼는 법의 권위를 이용하여, 셉티머스, 나아가 그를 세상과 연결시켜 주는 부인 레지아의 자유를 박탈한다. 결국, 셉티머스는 전쟁 군인들을 위한 법안에 대해 죽음으로 기여하는, 법안 상정을 위한 토착정보원으로 필요했었고 폐제된 것이다.

셉티머스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전쟁으로 인한 광기도 아니고, 어떤 비평가들이 말하듯 더블로서 클라리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와 같은 서발턴들의 주체를 상실하게 하고 폐제시키는 지배계층의 인식론적 폭력 때문이다. 셉티머스의 폐제는 그가 작품에서 퇴장하는 자살 장면을 통해 잘 드러난다. 그의 죽음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들의 잣대에 광인으로 분류된 그를 세상에서 격리하려는 지배계층의 압력에 밀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어차피 요양원으로 보내질 처지였지만, 그 처방을 서둘러 시행하려는 홈즈의 압력은 셉티머스가 아예 삶의 무대 바깥으로 나가게 만든다.

---

77) Woolf (2009), p. 82.

78) Woolf (2009), p. 156.

79) Woolf (2009), p. 155.

80) Woolf (2009), p. 155.

남은 것은 창문뿐이었다. 블룸스버리 하숙집의 커다란 창문, 창문을 열고 몸을 밖으로 던지는 것은 귀찮고 피곤하고 게다가 멜로드라마 같은 일이었다. 그건 그 사람들 식의 비극이지. 그나 레지아의 방식은 아니었다(왜냐하면 그녀는 그의 편이니깐). 홈즈나 브래드쇼는 그런 일을 좋아한다(그는 여전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릴 것이다. 그는 죽고 싶지 않았다. 산다는 건 좋은 일이었다. 해는 뜨겁고. 유일한 인간 존재들? 맞은편 계단을 내려오다 말고 한 노인이 멈춰서 그를 쳐다보았다. 홈즈가 문 앞에 왔다. ‘자 너한테 줄게’ 그는 외치며 필머 부인의 안마당 울타리로 단호하고 난폭하게 몸을 던졌다.

There remained only the window, the large Bloomsbury lodging-house window; the tiresome, the trouble some, and rather melodramatic business of opening the window and throwing himself out. It was their idea of tragedy, not his or Rezia’s (for she was with him). Holms and Bradshaw liked that sort of thing. (He sat on the still.) But he would wait till the very last moment. He did not want to die. Life was good. The sun hot. Only human beings? Coming down the staircase opposite an old man stopped and stared at him. Holmes was at the door. ‘I’ll give it you!’ he cried, and flung himself vigorously, violently down on to Mrs Filmer’s area railings.<sup>81)</sup>

홈즈를 피해 셉티머스가 창문 밖으로 몸을 던지는 위의 장면은 그 유명한 레지아의 모자 만들기<sup>82)</sup> 바로 다음에 등장한다. 스미스 부부는 의사로부터 서로 떨어져 지내야 하는 강제성 있는 처방을 받았지만, 오히려 브래드쇼에게 다녀온 이후의 셉티머스는 정상적으로 보이고, 둘은 서로에게 의존적이다. J. 힐리스 밀러(J. Hillis Miller)는 부부가 함께 의논하여 아름다운 모자를 만들어 내는 이 장면을 소통의 힘을 나타내는 장

81) Woolf (2009), pp. 126-27.

82) Woolf (2009), pp. 121-22.

면이라 짚어낸 바 있다.<sup>83)</sup> 셉티머스는 디자인을 레지아는 바느질을 맡아 훌륭한 모자를 만들어 내는 장면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사실 보다, 늘 삶에서 떠나갈 것 같아 꼭 붙들어 주어야만 했던 남편이, 그리고 심지어 광인으로 의사에게 분류된 셉티머스가, 아내의 작업에 정상적으로 동참하여 광인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있다. 이 협업의 과정을 통해 레지아는 남편이 제정신임을 깨닫고, 그들에게 분리를 명령한 홈즈나 브래드쇼에게 대항할 힘을 뒤늦게 얻지만, “아무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다”<sup>84)</sup>고 몇 번이나 다짐하는 이 장면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홈즈가 등장한다. “어린 암탉처럼 날개를 펼치고”<sup>85)</sup> 홈즈를 막아내는 레지아의 소리를 들으며, 셉티머스의 시선은 두려움을 가득 담고 있다. 홈즈가 방으로 들어와 할 행동에 대한 상상만으로도 강박적인 반응을 보이던 셉티머스는 홈즈가 계단을 오르며 내는 쿵쿵 발소리만 듣고도 삶을 포기한다. 이전까지 죽고 싶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던 셉티머스는 뛰어내리기 직전에야 생각을 바꾸어 “죽고 싶지 않다”거나 “삶은 좋은 것”이라며 삶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지만, 문밖에서 다가오는 홈즈의 압력에는 이기지 못하고 결국 창문 밖으로 투신하고 만다.

다시 정리하자면, 셉티머스의 죽음은 단순히 참전 군인의 광기를 증명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영국 지배계층의 주체가 타자인 그에게 주체의 방식을 강요하고 폐제를 종용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다. 결국, 셉티머스를 서발턴으로 잃어낼 때 그의 죽음은 당시의 배경인 제국주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인식론적인 폭력 중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

83) J. Hillis Miller (1982), “Mrs. Dalloway: Repetition as the Raising of the Dead,” *Virginia Woolf's Mrs. Dalloway*, New York: Chelsea. pp. 92-93.

84) Woolf (2009), pp. 125-26.

85) Woolf (2009), p. 126.

## 5. 나가며

스피박의 『탈식민이성비판』은 많은 논의를 담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토착정보원과 서발턴 개념은 인간 이성에 대한 기존의 시선을 바꾸어 놓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제껏 인간 이성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내고, 인간 존재의 우월성과 그로 인한 자유까지 허락해 주었던 칸트의 이성 비판은 스피박의 독해를 통해 폐제된 토착정보원을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이 된다.

『델러웨이 부인』에서의 셉티머스는 서발턴의 개념을 적용하여 읽을 때, 지배계층의 인식론이 강요되고 동시에 타자의 주체성은 말살되는 제국주의의 상황을 재현하는 인물로 읽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는 『제인 에어』에서 폐제된 버사와 셉티머스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스피박이 찾아낸 토착정보원의 존재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존재가 밝혀졌다는 것만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 탁월한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집단은 이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다시 되물어져야 한다. 불쾌를 왜로 바꾸며 감성의 영역까지 이성이 다스릴 수 있게 매개해 주었던 상상력은 그 너머에 존재하는 버사와 같은 타자를 애써 지우는 폭력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 광기의 셉티머스에게 요양의 처방을 내린 지배계층은 과연 어떤 근거로 그런 처방을 내릴 수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 정전으로 읽어 온 영문학 작품들 또한 주인공의 성취를 위해 누구를 폐제시키고 있는지 다시 읽혀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탈식민이성비판』은 탈식민 담론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영역에 새로운 장을 열어주는 계기가 된다.

스피박의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의 질문이 에세이에서 저서로 그리고 그에 대한 수많은 질문과 대답들로 증식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서발턴의 개념을 토착민에게만 한정짓지 않고 광기나 추방 등의 영역으로 확장시킨 것 또한 탈식민주의의 논의가 지정학적으로 제

3세계에만 한정되지 않고 다른 범위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준다. 결국 스피박의 시선에서 칸트의 “날 것의 인간”(man in the raw)<sup>86)</sup>이란 어떤 분과의 장 안에서도 주체로서의 자리를 확립하지 않은 “아직-주체가-아닌-자”일 뿐이다. 아직 주체가 되지 못한 이들을 위해 모든 분과는 이제 바빠 움직여야만 한다. 기존의 범주에 있던 적당한 자리에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포함할 수 있는 새로운 범주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스피박의 『탈식민이성비판』은 매우 생산적인 담론이라 평가할 수 있다.

---

86) Spivak (1999), p. 13.



## 참고문헌

### 【자 료】

Spivak, Gayatri Chakravorty (1999), *A Critique of Postcolonial Reason: Toward a History of the Vanishing Present*, Cambridge: Harvard UP.

\_\_\_\_\_ (1998), *In Other Worlds: Essays in Cultural Politics*, New York: Routledge.

\_\_\_\_\_ (1993), *Outside in the Teaching Machine*, New York: Routledge.

\_\_\_\_\_ (1990), *The Post-Colonial Critic: Interviews, Strategies, Dialogues* (ed. by Sarah Harahsym), New York: Routledge.

\_\_\_\_\_ (1988), "Can the Subaltern Speak?,"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ed. by C. Nelson), Basingstoke: Mackmillan Education.

\_\_\_\_\_ (1985), "Three Women's Texts and a Critique of Imperialism," *Critical Inquiry*, 12.1.

Woolf, Virginia (2009), *Mrs. Dalloway* (ed. by David Bradshaw), Oxford: Oxford UP.

### 【논 저】

김상현(2006), 「칸트 미학에 있어서 감정과 상상력의 관계」, 『칸트연구』 17.

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역 (2012), 『판단력비판』, 서울: 아카넷.

임옥희(2002), 「스피박의 페미니즘: 탈식민 공간을 위하여」, 『여성이론』 6.

Abdalkafor, Ola (2015), *Gayatri Spivak: Deconstruction and the Ethnics of Postcolonial Literary Interpretation*, Newcastle: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Abel, Elizabeth (1983), "Narrative Structure(s) and Female Development: The Case of *Mrs. Dalloway*," *Virginia Woolf's Mrs. Dalloway*, New York: Chelsea.

Birla, Ritu (2010), "Postcolonial Studies: Now That's History," *Can the*

- Subaltern Speak? Reflections on the History of an Idea*, New York: Columbia UP.
- DiBattista, Maria (1980), “Mrs. Dalloway: Virginia Woolf’s Memento Mori,” *Virginia Woolf’s Mrs. Dalloway*, New York: Chelsea.
- Froula, Christine (2005), *Virginia Woolf and the Bloomsbury Avant-Garde: War, Civilization, Modernity*, New York: Columbia UP.
- Gaipa, Mark (1996), “When All Roads Lead to Empire,” *ELT* 39.1.
- Hickman, Valerie Reed (2014), “Clarrisa and the Coolies’ Wives: Mrs. Dalloway Figuring Transnational Feminism,” *MFS* 60.1.
- Kneller, Jane (1999), *Kant and the Power of Imagination*, New York: Cambridge UP.
- Louai, El Habib (2012), “Retracing the Concept of the Subaltern from Gramsci to Spivak: Historical Developments and New Applications,” *AJHC* 4.1.
- Lee, Hermione (1977), “Mrs. Dalloway,” *Virginia Woolf’s Mrs. Dalloway*, New York: Chelsea.
- Marcus, Jane (2004), *Hearts of Darkness: White Women Write Race*, New Brunswick: Rutgers UP.
- Miller, J. Hillis (1982), “Mrs. Dalloway: Repetition as the Raising of the Dead,” *Virginia Woolf’s Mrs. Dalloway*, New York: Chelsea.
- Morton, Stephen (2003), *Gayatri Chakravorty Spivak*, New York: Routledge.
- Parry, Benita (1987), “Problems in Current Theories of Colonial Discourse,” *Oxford Literary Review* 9.1.
- Phillips, Kathy J. (1994), *Virginia Woolf against Empire*, Knoxville: U of Tennessee PBirla[‘.
- Sim, Lorraine (2016), *Virginia Woolf: The Patterns of Ordinary Experience*, New York: Routledge.
- Snaith, Anna (2000), *Virginia Woolf: Public and Private Negotiations*, New York: Palgrave.
- Walkowitz, Rebecca L. (2006), *Cosmopolitan Style: Modernism Beyond the Nation*, New York: Columbia UP.
- Whitworth, Michael H. (2009), *Authors in Context: Virginia Woolf*, Oxford: Oxford UP.

Young, Robert (1990), *White Mythologies: Writing History and the West*, New York: Routledge.

원고 접수일: 2016년 10월 24일

심사 완료일: 2016년 11월 5일

게재 확정일: 2016년 11월 8일

Abstract

---

Rereading Virginia Woolf's *Mrs. Dalloway*  
through the Subaltern Concept of Gayatri Spivak

Choi, SangYi\*

This study examines foreclosure of a Native Informant and a subaltern as discussed in Gayatri Chakravorty Spivak's *A Critique of Postcolonial Reason: Toward a History of the Vanishing Present* and rereads *Mrs. Dalloway* through her reading of *Jane Eyre* and its criticisms. Spivak notices the Native Informant who should be foreclosed in the process of Sublime in Kant's *Critique of Judgment*. Also she points out the same pattern in the bourgeois feminist critiques that celebrate Jane's achievement as an individual female. According to Spivak, Jane is accepted into the patriarchal family law through Bertha Mason who is a foreclosed subaltern female by madness. She accuses the feminist critiques for being complicit in imperial axiomatism, not discussing the relation between Jane and Bertha. While there is no third-world character in *Mrs. Dalloway* written by a first-world female author, Virginia Woolf is deeply related to imperialism. I attempt to apply the Sublime in reading *Mrs. Dalloway*, especially focusing on the double discussion between Clarissa Dalloway and

---

\* PhD Student,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eptimus Smith. I claim that Clarissa contemplates Septimus's suicide through the dynamic of Sublime and that Septimus, a shell-shocked veteran, is not simply a Clarissa's double, but rather a foreclosed subaltern. Therefore, this study reveals the comparability between the double discussions in *Mrs. Dalloway* and Spivak's subaltern argument.

